

■ 특특뉴스

손보 5곳, 내달부터 차보협료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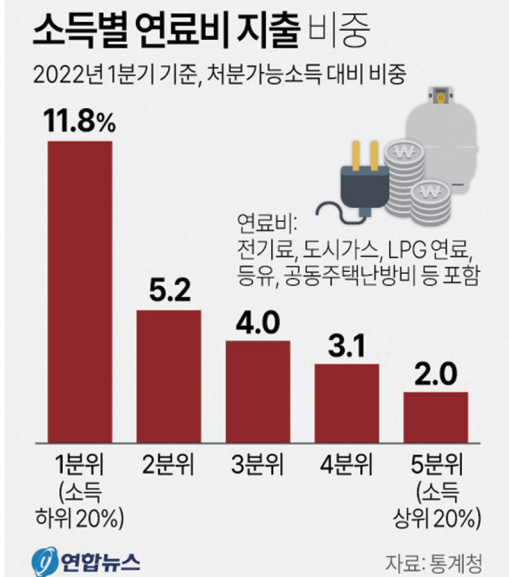
대형 손해보험 5사가 내달 말부터 일제히 자동차 보험료를 내린다.

2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내달 25~27일 책임개시 건부터 보험료를 2.0~2.5%를 인하할 예정이다.

KB손해보험은 내달 25일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책임 개시 건부터 보험료를 2.0% 내린다.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내달 26일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책임개시 건부터 2.0%, 메리츠화재는 내달 27일 책임 개시 건부터 2.5%를 인하한다. 삼성화재는 정확한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들 손해보험사와 유사한 시기에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2.0% 내리기로 했다.

앞서 롯데손해보험은 손해보험사 중 제일 먼저 지난 1일 개인용 자동차보험 책임개시 건부터 보험료를 2.0% 내린 바 있다.

■ 그래픽 경제



소득하위 20%, 연료비 지출 비중 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작년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연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10만288원으로 처분가능 소득(84만7,039원) 대비 비중은 11.8%였다.

5분위 가구의 연료비는 16만6,915원으로 가처분소득(846만9,997원) 대비 지출 비중은 2.0%였다. 2분위가 5.2%, 3분위가 4.0%, 4분위가 3.1%로 소득이 낮을수록 비중도 커졌다.

“중국산 써야 하나”...식당들 ‘금치’ 하소연

배추·고춧가루 등 재료비 폭등

시중가 국내산보다 30% 저렴

작년 수입액 전년비 20% 늘어

광주시 북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유 모씨(53)는 지난달부터 기본 반찬 구성에서 배추김치 대신 단무지와 장아찌를 올리기로 시작했다.

배추 가격이 김장철 들어 안정되긴 했지만 몇 년 새 야채 등 김치 재료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유씨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했는데 메뉴 가격은 이미 반년전에 올렸고 도저히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다”며 “꼭두기도 있으니 팬장을 거라 생각했지만 김치를 찾는 손님이 많다. 중국산 김치라도 올려야 하나 고민이다”고 토로했다.

중국산 김치가 국내 식탁을 점령하고 국내산 김치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국내 채소가

격 폭등으로 제곱이 쉽지 않자 저렴한 수입산 김치 비중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수입김치의 위생 논란과 국산 김치의 이윤 감소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영업자의 하소연도 늘어나고 있다.

26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배추 1포기 평균 소매가격은 4,845원으로 지난 2019년(3,475원) 대비 39.4% 상승했다. 또다른 주재료인 무 가격도 3년전 1,894원에서 2,278원 20% 올랐다.

김치를 만드는데 필요한 양념 등 부재료가 가격도 급등했다. 같은 기간 간마늘은 8,490원에서 54.8% 증가한 1만3,146원에 거래됐고 그 외 당근 10.4%(3,921원) 고춧가루 6%(2만8,541원), 파 13.7%(3,131원) 등 대부분 재료가 상승했다.

이같은 채소 가격 상승세는 국산 김치 사용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중국산 김치 수요를 증가시켰다.

같은날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김

치 수입액은 전년보다 20.4% 증가한 1억6,940만달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입 김치는 모두 중국 김치로 수입액 증가율은 2010년(53.8%) 이후 12년 만의 최고다.

지난 2021년에는 중국의 ‘알몸 김치’ 동영상 파문으로 수입액이 1,000만 달러 줄어들기도 했다. 하지만 물가 폭등이 계속되고 중국산 김치가 국내산 완제품 김치보다 약 30%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다 보니 불과 1년만에 다시 20% 넘게 증가했다.

이같은 상황에 자영업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위생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는 중국산 김치를 제공하는게 불안하지만 국내 채소 가격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것이다.

서구 쌍촌동에서 고기집을 운영하는 김 모씨(49)는 “지난해 가을 배추가격이 폭등했을때 구이용 김치를 중국산으로 바꿨다”며 “그 이후 김치를 남기거나 손 조작 안 대는 손님이 늘었다. 중국산 김치는 특히 시선이 안좋아 다시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지역 소비심리 소폭 회복했지만

경제 전망 ‘비관’...평균 밑돌아

가계부채·금리·물가지수 ‘암울’

새해 광주·전남지역의 소비심리가 전월대비 회복됐으나 여전히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광주·전남 도시가구 6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1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6.4p로 전월대비 2.1p상승했으나 전국 평균인 90.7p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광주의 CCSI는 지난해 5월 102.3p를 기록한 후 7개월 연속 기준치인 100p를 밑도는 등 소비 심리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소비자동향지수 또한 전월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광주의 현재생활형편CSI는 82p로 전월대비 2p 올랐으며, 생활형편전망CSI와 가계수입전망CSI는 각각 81p, 93p로 전월과 동일했다. 소비지출전망은 109p로 전월대비 2p 상승했다.

전남의 현재생활형편CSI는 79p로 전월대비 1p 하락했다. 생활형편전망CSI와 가계수입전망CSI는 각각 80p, 92p로 전월대비 각각 3p, 1p 상승했다. 소비지출전망은 106p로 전월대비 3p 상승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판단하는 현재경기판단CSI와 향후경기전망CSI는 전월대비 각각 1p 상승했으나, 취업기회전망CSI는 전월대비 1p, 금리수준전망CSI는 전월대비 4p 하락하며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기조를 유지했다.

현재가계저축CSI 및 가계저축전망CSI 또한 전월대비 각각 1p씩 하락했으며, 현재가계부채CSI와 가계부채전망CSI는 전월대비 각각 3p, 6p씩 크게 떨어졌다.

물가상승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물가수준전망CSI는 전월대비 1p 낮아졌으며, 주택가격전망CSI는 전월대비 7p 상승했으나 임금수준전망CSI는 전월과 동일했다. /오지현 기자



고병일 광주은행장, 골드클래스(주) 방문

고병일 광주은행장(왼쪽에서 네 번째)은 26일 주거래치인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위치한 골드클래스(주) 본사를 찾아 박철홍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유)하우젠공조시스템
Samsung System Air Conditioner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 가전 대량납품 전문회사
(유)하우젠공조시스템

(유)하우젠공조시스템은 학교, 아파트신축, 대형빌딩, 병원, 대형교회 등 시스템에어컨 대량납품 전문회사로 최첨단 제품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최적 맞춤설계 및 고품질 시공과 완벽한 사후 관리를 약속드립니다.

영/업/모/집
○ 정규직 2명
○ 프리랜서 수시
※ 남녀 연령 무관 / 출퇴근 자율

www.shb2b.kr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 54(용봉동) FAX. 062-515-7878 E-MAIL. shsa9999@daum.net TEL. 062-511-0006

www.shsa.kr

대형건물용 실내기 시스템에어컨 360

대형건물용 실내기 DVM S2

대표이사 신철우

Certificate of Samsung Star Partner
2022년
상위 1% 우수기업 인증
STAR 파트너 인증
2022년
상위 1% 우수기업 인증
STAR 파트너 인증